

# 언어통일이 민족통일 토대 된다

## 북한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金敏洙

고려대 교수 · 국어학

### 언어통일의 중요성

공산권 자료를 엄격히 금지하던 종전에는 당국에서 허가받은 극소수가 폐쇄된 속에서 연구했고, 그 결과의 공개도 당국의 뜻에 따라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필자는 이런 시기에 미국 하버드대학에 체류하는 1964~65년 하버드 엔칭도서관에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다. 귀국해서는 1967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특별연구계획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고, 최초로 그 공식적 연구를 시작했다. 어려운 원자료의 수집과 생소한 분석에 3년간 종사한 것이다.

그 연구계획의 보고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 기관지 「亞細亞研究」에 발표는 되었지만, 그 결과를 주축으로 한 단행본의 출판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남북통일을 생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아니면 운동경기나 考古遺物 등의 교류에 쏠리고, 言語는 소외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이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은 곧 민족통일이며, 민족통일의 기초는 언어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기초를 무시하고 무슨 통일을 꾀하겠는가?

그 단행본 「北韓의 國語研究」는 15년만인 1985년 10월에 겨우 출판되었다. 그것도 대학 출판부의 학술도서 간행조성비를 신청하여 나서서 쟁취한 것이었다. 생각하면 자신을 과시하는 이 행위는 학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나, 자신의 저서를 하나 더 내겠다는 욕심에서 아니었다. 빈약한 책일지라도 북한의 실태를 알려 언어가 남북통일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서둘러 널리 제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 분야에 먼저 손댄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을 의식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공산권의 일반적인 언어정책,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이질화된 언어의 실태, 民族語의 공동연구, 독자적인 북한문법의 기본골격 등 5편으로 구성되고, 자료와 색인을 합쳐 국판 630면이었다. 그러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수정이나 보충이 좀처럼 작성되지 않다가, 급증하는 수요에 따라 금년 5월에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우선 그들의 강령적 지침인 김일성교서 2편을 추가하고, 전반적으로 수정한 1988년판 「규범집」을 수록하여

최근 북한언어에 관한 세권의

연구저서가 잇달아 간행되었지만,

북한언어의 연구는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자료센터 설치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민족화합의 측면에서는 方言差까지도

없애는 것이 이상이므로, 이 작업은

통일된 후에도 지속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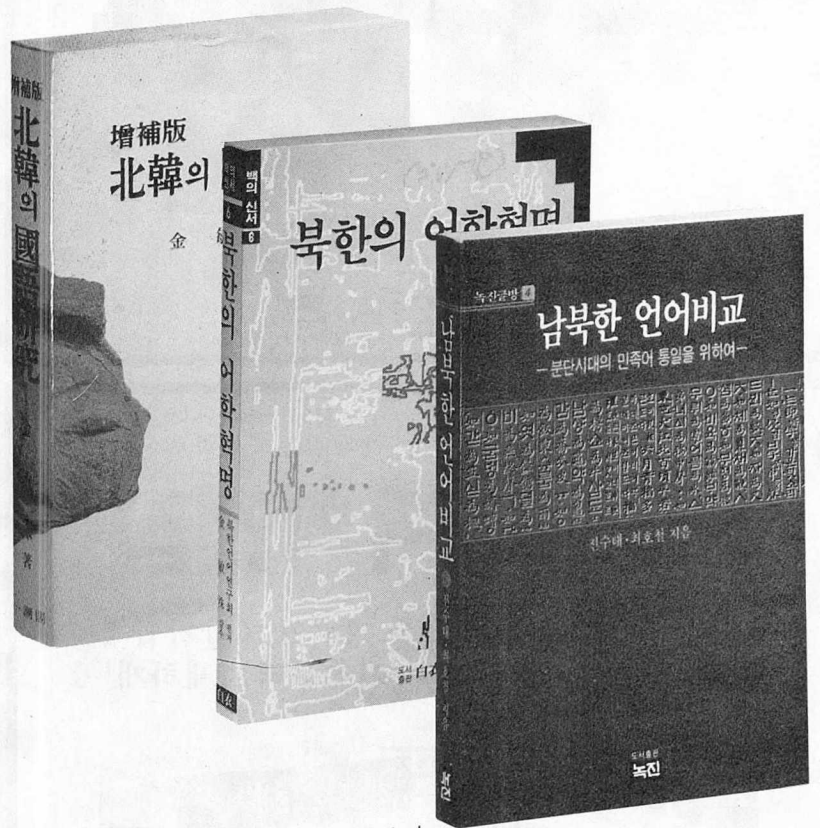
최근의 실태를 신속히 엿보도록 한 것이다.

### 공동집필 「북한의 어학혁명」

필자의 「北韓의 國語研究」는 이 분야의 최초의 단행본이기는 하지만, 1982년 이후의 서술이 없고 그 이전의 서술도 자료 탓일지라도 미비한 것이다. 그 증보판에서 자료가 보완되었어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이미 작업과정에서 느낀 이 문제를 자신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벽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북한 연구의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학원의 課程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1985년 위 단행본의 출판과 함께 그 과정을 개설했다.

자기 전공의 기초를 갖춘 바탕 위에 이와 같이 섭렵하는 것은 그 전공의 공통성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우선 첫번째 과정에서 원자료를 섭렵하게 하면서 이수한 결과, 자기의 주제에 대하여 각기 일가견을 가지고 그 나름의 논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8년 1월에 개정된 남쪽의 맞춤법과 표준어가 공고되면서, 이번에는 남북언어의 비교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당면한 이 과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1988년에 개설한 대학원의 두번째 과정이었다.

오늘날 북쪽의 언어는 어떠한 상황인가? 남북언어의 이질화는 어느 정도인가? 통일을 앞두고 누구나 궁금한 이 문제는 북쪽의 시각에서도 보고, 남북언어 비교의 측면에서도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섭렵하면서 전문적인 분석을 시도했는데,



그 기간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有終의 美를 거두게 되었다. 우선 20여편의 논문이 동시에 모이고, 그 내용도 개인이 다할 수 없는 언어정책 · 언어규범 · 언어이론에서 언어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고루 망라 되었다.

1989년 3월에 「북한의 어학혁명」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은 최초의 집단토론으로 공동연구를 거쳐서 이룩된 만큼, 모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깊이있고 치우치지 않게 수정되어 새롭고 다양한 내용이다. 그래서 담이고 담여진 글은 다 특색있는 것이 되었다. 특히 김일성교서 분석, 언어정책 시행기관, 남북을 비교한 글, 북한의 언어이론을 분석한 글, 북한의 한자교육 등은 전례를 보기 드문 독보적 주제들이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체제의 불통일이나 의외의 誤字가 종종 눈에 띄는 것이 유감이다. 공동작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판을 달리할 때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더 새롭게 수정되고 더 충실하게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民族語의 통일 방안에서는 남북의 계속된 교류가 남북 언어학자들의 언어회의, 남쪽의 국가적 연구기관의 설립 등을 제기하고 있다. 매우 적절하고 중요

한 제안이다. 더 나아가서, 남북이 합의 가능한 부분을 모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기획저술 「남북한 언어비교」

위에서 언급한 20여명의 필진 중에서 田秀泰, 崔鎬哲君은 지난 6월에 「남북한 언어비교」라는 또 하나의 저술을 제2탄으로 공개했다. 특히 두 저자는 최근까지 국어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이 부분의 분석에 종사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실무에 밝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가 아니면 그 저서가 나올 수 없었으리라는 느낌이다. 언어의 비교란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도 이런 뜻에서 최초의 저술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 白衣에서 출판한 「북한의 어학혁명」은 신국판 470면의 주제별 글모음의 성격인데, 도서출판 녹진에서 출판한 「남북한 언어비교」는 신국판 410면의 기획저술이다. 따라서, 전자는 오늘날 북한의 사정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실태를 광범위하게 이해하기에 필수적인 책이며, 후자는 남과 북 언어의 격차

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필요한 책이다. 각기 서로 다른 목표와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두 책을 합쳐서 보아야 구비된 하나의 저술이 된다고 하겠다.

이들이 다 민족어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을 믿고 있지만, 특히 「남북한 언어비교」는 분단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적지 않은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령, 화장실(위생실), 산책길(유보도), 양해(료해), 상호(호상), 확성기(고성기), 진열대(매대), 월동(과동), 결과(과과), 달걀(닭알), 기역(기육), 그리스(희랍), 북경(베이징) 등과 같은 대조자료 제공이 그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통일하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길을 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북한의 언어정책, 북한의 언어연구, 북한의 언어실태 등 3편으로 짜여졌다. 그 언어정책은 총괄적인 서술이나 그 언어연구에서는 국어사, 어음론, 어휘론, 형태·품사론, 문장론, 문체론 등에 걸쳐 남북을 對比한 학문적 차이를 광범하게 밝히려고 힘썼다. 그리고 그 언어실태에서는 말다듬기, 한자어와 외래어에서 교과서, 언어예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역시 남북을 대비한 차이의 실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보지 않으면 그 격차의 심각성은 짐작도 못할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대비적 분석은 처음 보는 내용이다. 교과서는 그 정책이 직접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이나, 지금껏 구할 수 없어서 보지도 연구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시선이 가는 곳은 김일성, 김정일, 김형직, 김정숙, 리수복의 찬양이다. 그리고 언어예절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흥미를 언어예절의 진수로 다루어 규격화한 것이 아주 특이하다. 또, 마지막으로 김일성이 만든 새 말 23개와 김정일이 만든 새 말 2개를 소개했는데, 이러한 말다듬기도 남쪽에서 보기에는 특이하다.

#### 앞으로의 북한어 연구

현재 북한어의 연구는 아직도 초기단계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권의 단행본이 잇달아 출판되었지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는 이제부터 힘찬 박차를 가해야 하겠고, 나중에는 분야별로 각각 체계적인 研究史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즈음에야 비로소 이 학문이 정립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연구가 이처럼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열거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헌의 결핍이었다.

필자가 이 연구에 처음 착수할 때부터 그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당국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완비된 자료센터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요청했다. 문헌이 없이 연구하라는 것은 마치 목수더러 맨손으로 장을 짜라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당국은 이 이상 더 늦추지 말고 정부차원의 명실상부한 센터를 시급히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앙의 한 도서관을 지정하여 산재한 자료를 복사의 방식으로라도 널리 철저하게 수집하고 보존하면 되는 것이다.

자료가 구비되면 그 연구의 시설은 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연구와 출판은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기초적인 언어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지금 당장 착수하더라도 수년내로 완성될 성질도 아니다. 더구나 민족화합의 측면에서는 方言差까지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통일된 후 21세기에라도 치밀하고 실질적인 연구와 함께 거족적인 운동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남과 북의 언어회담이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선행할 것은 언어통일에 대한 정부차원의 능동적인 계획의 수립이다. 1세기가 걸릴지도 모를 이 청사진은 인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통일되기까지 어떠한 언어형태를 지향하여 어떤 과정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나 출판도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 목표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대두된 지역감정과 같은 통일 후에 야기될 문제까지도 해소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 작품구상

## 멀고 험한 구도의 여행길

「아제아제 바라아제 2」

韓勝源

소설가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제1부에서는 두 비구니의 출가와 방향만을 그렸다. 제2부에서는 두 비구니와 인연했던 다른 사람들의 삶도 조명할 생각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완결된 것이 아니다. 1부에서는 두 비구니의 출가와 방향만을 그렸다.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려볼 엄두를 못내고 끝을 낸 것이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가없는 것들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들을 제도한다(上求菩提下化衆生)”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주인공은 겨우 그 깨달음의 어귀에 이르렀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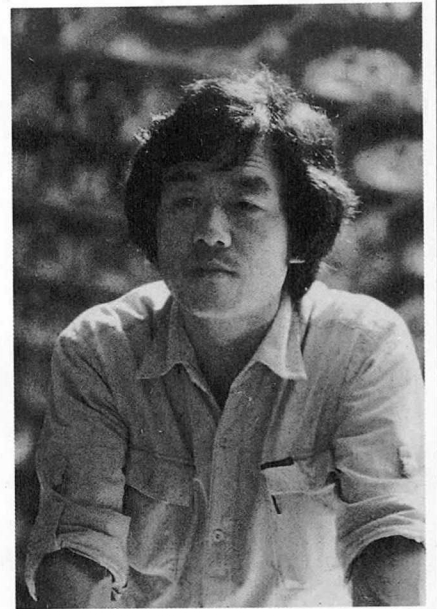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 때, 나는 시나리오를 써주었다. 그때 나는 「아제아제...2」에서 쓰려고 했던 것의 일부를 덧붙여 그 각색을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은 아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몇십분의 일이나 해졌을까.

요즘 나는 불경공부를 하고 있다. 전에 읽었던 것들을 새로이 읽어보고, 읽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듬어 읽는다. 「無門關」도 다시 보고, 祖師의 어록들도 훑고, 위대한 자유인들의 행적들도 살핀다. 원효라든지, 만공이라든지, 만해라든지 나는 위대한 자유인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너무 유명해져버린 것이 나로서는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

나는 차분하게 기다려 왔었다.

「아제아제...」 1부를 끝낼 무렵 나는 그 방면의 공부가 많이 부족했었다. 그 소설의 주축이 되는 두 인물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깨달음 언어가기를 당시 내 속에 축적된 힘으로써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더 무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1부를 끝낸지 5년이 지났다. 그 인물들과 함께 나는 나이를 몇살 더 먹었다. 내 이야기의 샘 속에는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많이 고였다.

먼저 나는 1부 가운데 몇 곳을 개작할 생각이다. 1부에서는 파계를 하고 떠도는 순녀 쪽에 비중을 두었었다. 나는 그 인물 못지않게 청정을 고집하며 구도하는 진성이라는 인물에도 애착을 가지고 있다.

2부에서 나는 그 두 여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살아가기의 길은 멀고 험한 구도의 여행길에 다름 아니다. 두 여자와 인연했던 다른 사람들의 아프게 살아가기도 조명을 해볼 생각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반드시 머리끄고 먹물든 옷을 입은 자들만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같아서는 2부를 쓰기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 순례를 해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일본이나 중국도 더듬어보고 싶다. 한데, 건강에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 이 우둔한 자에게 건강은 또 하나의 뛰어 넘어야 할 장벽이다.